# 특집

# 2015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차례


① 배합사료산업 전망 총평 … 6
② 한육우 사료산업 전망 … 11
③ 낙농 사료산업 전망 … 17
④ 양돈 사료산업 전망 … 24
⑤ 양계 사료산업 전망 … 34

□ 2015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 배합사료산업 전망 총평

김 관 태
한국농어민신문 축산팀 차장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불안한 상황을 이어간 한 해였다.

더욱이 올 7월 FMD(구제역)가 재발하면서 백신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고, 어렵게 시동을 건 축산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료분야에서는 일부 축종을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띠면서 사료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다소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기상이변, 환율 급등과 같은 외부변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영연방 FTA 추진 등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 ■ 2014년 배합사료 업계는 어땠나

그동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총 1893만 6000톤을 기록, 1900만톤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2014년 배합사료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1900만톤을 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올해 9월까지 생산된 배합사료 누적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축종별로는 양계사료가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반면, 양돈과 축우사료는 각각 2.7%, 4.2% 감소했다. 낙농사료는 0.4%이지만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요인은 사육두수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한 · 육우 마릿수는 282만 마리로 전년 동기 마릿수인 304만 3000마리 보다 7.3% 감소했다. 돼지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 사육 마릿수는 996만 6000마리로, 전년 동기 1018만 8000마리

<표 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 합계 | 양계 | 양돈 | 축우 | | 기타 |
|---|---|---|---|---|---|---|
| | | | | 낙농용 | 비육용 | |
| 2010 | 17,710 | 4,658 | 5,535 | 1,292 | 4,761 | 1,464 |
| 2011 | 16,815 | 4,748 | 4,482 | 1,240 | 4,792 | 1,553 |
| 2012 | 18,640 | 4,823 | 5,685 | 1,337 | 5,143 | 1,652 |
| 2013 | 18,936 | 4,790 | 6,136 | 1,332 | 5,213 | 1,465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표 2> 2013 · 2014년 축종별 생산실적 비교

(단위 : 천톤)

| 구분 | 합계 | 양계 | 양돈 | 낙농 | 비육 | 기타 |
|---|---|---|---|---|---|---|
| 2013년 1~9월(A) | 13,965 | 3,547 | 4,477 | 992 | 3,860 | 1,089 |
| 2014년 1~9월(B) | 13,852 | 3,864 | 4,355 | 995 | 3,700 | 937 |
| 누계대비 B/A(%) | 99.2 | 108.9 | 97.3 | 100.3 | 95.8 | 86.0 |

※ 자료 : 한국사료협회 9월 배합사료 생산실적

보다 2.2% 줄었다. 반면 배합사료 생산량이 늘어난 닭은 3분기 사육 마릿수가 1억 5163만 5000수로, 전년 동기 1억 3672만 1000수 보다 10.9% 늘어난 상태다.

배합사료 생산량은 줄었지만 환율 안정에 따른 사료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다소 나아진 한 해였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한 때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에 근접하기도 했다. 다만 올 상반기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상이변 우려 등으로 국내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및 환율 안정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요구를 이어갔으며,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사료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를 공개해 합리적인 배합사료 가격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기기도 했다.

## ■ 2015년 배합사료 시장은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완전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업체 간 인수합병은 물론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 더욱이 축산농가 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농가당 사육규모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료업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성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사료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더욱 커

질 전망. 이를 반영하듯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시판 중인 배합사료와 TMR사료에 대한 성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각 사료업체들의 품질 경쟁도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군과 계열업체 중심의 배합사료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원에 짓고 있는 평택·당진공장의 경우 내년 3월경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연 생산 87만톤 규모다. 하림계열인 선진도 군산에 신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이들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가담할 경우 차별화된 품질의 사료 생산·공급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내 축산업 여건이다. 기 체결된 FTA와 함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과의 FTA가 현실화 되면서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향후 15년간 발생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총 2조1329억원으로, 연간 평균 1422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축산분야가 82%인 1조757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수입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미국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내년이 되면 관세가 2.1%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수입육의 증가는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축질병도 위협이 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AI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여름철에도 발병이 계속돼 상재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PED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생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각에선 대유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축질병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축산물 생산은 물론 소비감소로 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사료업계를 포함한 축산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높다.

## ■ 사육두수의 변화

지난해 돼지가격이 폭락하자 한돈농가들은 모돈 감축을 추진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분기 돼지 사육 마릿수는 총 1018만 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모돈 감축 효과가 나타나 올해 3분기에는 996만6000마리까지 사육 마릿수가 줄었다. PED 발생과 함께 양돈사료 생산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89만5000두까지 떨어졌던 모돈 마릿수가 올 1분기에는 91만두, 2분기와 3분기에는 92만 5000두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후보돈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도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돈의 교체 시기가 몰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돼지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사육 마릿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에 최근 열린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돼지가격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수급조절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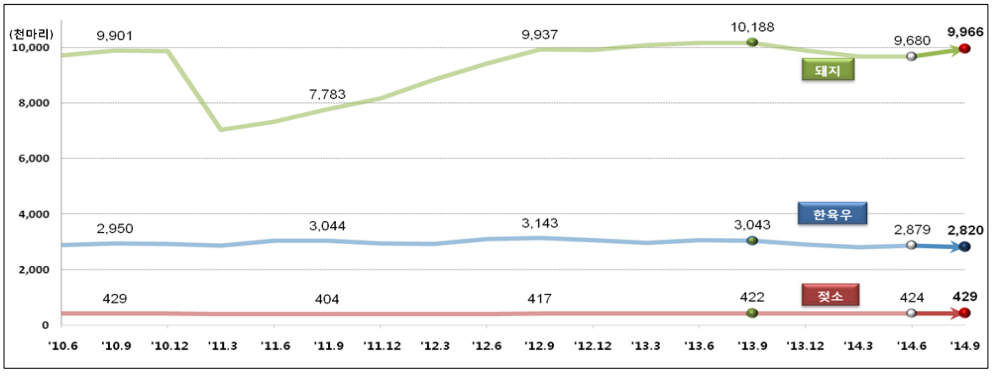
수급조절 여부와 PED 확산 등 외적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 돼지 사육 마릿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 3월 돼지 사육 마릿수를 970만~990만두로 전망했다.

한우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전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상반기에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정액 판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2017년까지는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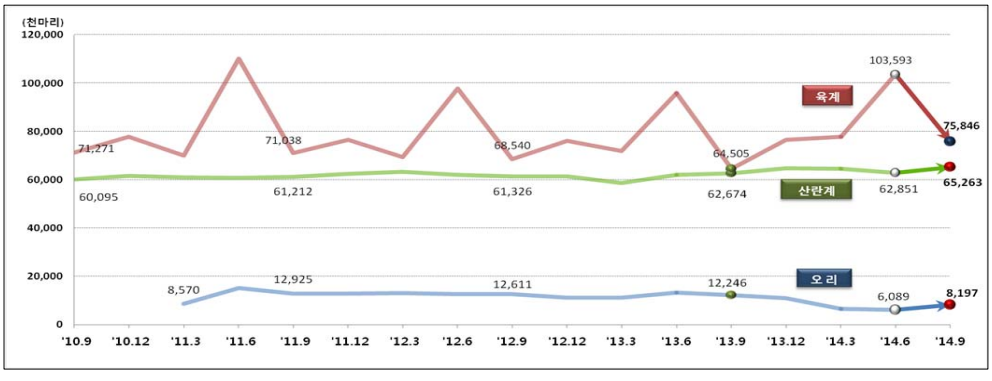
올해의 경우 가임암소 마릿수도 줄었는데 올해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서 나타난 한

**<그래프 1> 한 · 육우, 젖소, 돼지 사육마릿수 동향**




※ 자료 : 통계청 '2014년 3/4분기 가축동향' 조사

**<그래프 2> 닭(산란계 · 육계) 및 오리 사육마릿수 동향**




※ 자료 : 통계청 '2014년 3/4분기 가축동향' 조사

· 육우 가임암소 마릿수는 116만 5000마리로, 전년 동기 123만 4000마리에서 5.6% 감소한 상태다.

계열업체 간 점유율 경쟁 등으로 생산량이 늘었던 육계 분야는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올해 말까지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 증가로 인해 업체들이 닭고기 구매 · 비축에 들어간 상태로 단기적 수급조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종계도태가 필요한 상황. 여기에 국내 닭고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어 실질적 종계 도태가 이뤄진다면 사육 마릿수는 올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국제곡물가 및 환율 변동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9월 곡물 가격지수(2002~2004년 평균=100)는 8월보다 2.5% 하락한 177.9포인트를 기록,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4/2015 세계 곡물 생산량도 옥수수 등 잡곡 수확량 증가로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상태.

또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관측을 보면 올해 8월 옥수수 선물가격(CBOT)은 톤당 141달러로 전월 대비 6.2% 하락했으며, 옥수수 수출가격(FOB)도 전월보다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의 경우 올해 7월 2일 원-달러 환율이 1007.50원까지 하락하면서, 1000원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대부분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배합사료업체로서는 환차익이라는 호재가 작용했지만, 7월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져 최근엔 1060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당초 국내 사료업체들이 예상했던 선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미국의 경기회복세로 달러 강세가 본격화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화는 다른 국가의 통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폭 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사료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이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급격한 자본 이탈의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겠지만 원화는 소폭 절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견해는 아직 엇갈린다.

농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 순위는 쌀, 돼지, 한우, 닭, 우유다. 쌀을 제외하면 모두가 축산물로, 축산업이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임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국내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2015년에는 축산농가와 사료업계 모두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기대해본다.

# 한육우 사료산업 전망

**이 은 주**
천하제일사료 이사, 축우 PM

## ■ 2014년 한육우 사료산업 회고

2014년 한육우산업은 가임암소 사육두수 감소의 영향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와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로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 감소와 도축두수 감소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AI(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발생으로 인한 소비대체 및 돼지 PED(돼지 유행성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발생에 따른 돈육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쇠고기 소비판촉 행사 등으로 인한 소비량 증가로 9월 누계 기준 한우는 강보합세, 육우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2014년 9월누계 도축두수(표 1 참조)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98.8%로 1.2%감소하였으나,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97.7%로 2.3%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한우암소는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번식의향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89.1%로 10.9%감소하였으나, 한우거세는 107.9%로 7.9%증가하였다. 그러나 육우는 전년동기대비 109.1%로 9.1%증가하였다.

한우암소 도축율은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번식의향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49.8%이며, 한우수소 중 한우거세 출하비율이 93.2%로 전년동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우 수소 중 거세 출하비율이 92.1%로 전년동기대비 1.6%감소하였다.

**(표 1) 도축두수 현황**

| 구분 | 한 우 | | | | 육 우 | | | | 젖 소 | 계 | 암소도축율 | 한우거세우비율 | 육우거세우비율 |
|---|---|---|---|---|---|---|---|---|---|---|---|---|---|
| | 암 | 수 | 거세 | 계 | 암 | 수 | 거세 | 계 | 암 | | | | |
| 2013년 | 391,058 | 22,184 | 303,076 | 716,318 | 6,415 | 2,611 | 38,746 | 47,772 | 34,122 | 798,212 | 54.6% | **93.2%** | 93.7% |
| 2014년 | 348,555 | 24,051 | 326,879 | 699,485 | 5,174 | 3,709 | 43,247 | 52,130 | 37,027 | 788,642 | 49.8% | **93.2%** | 92.1% |
| 전년대비 | 89.1% | 108.4% | 107.9% | 97.7% | 80.7% | 142.1% | 111.6% | 109.1% | 108.5% | 98.8% | -4.8% | 0.0% | -1.6%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9월 누계 기준

(표 2) 평균 도체중(kg)

| 구분 | 한우 | | | 젖소 | 육우 | | | 평균 |
|---|---|---|---|---|---|---|---|---|
| | 암 | 수 | 거세 | 암 | 암 | 수 | 거세 | |
| 2013년 | 322 | 390 | 420 | 379 | 350 | 394 | 411 | 368 |
| 2014년 | 332 | 396 | 423 | 382 | 353 | 403 | 419 | 379 |
| `13년/`14년 | 10 | 6 | 3 | 3 | 3 | 9 | 8 | 11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9월 누계 기준

그러나 평균 도체중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양기술 향상과 사육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11kg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누계 쇠고기 수입량(표 3)은 미국 및 호주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육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량이 208,316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3.1%로 13.1%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는 증가하고 뉴질랜드, 멕시코, 우루과이는 감소하였다.

부위별 수입량(표 4)은 보면 양지, 안심, 기타는 감소하였으나, 기타 부위는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누계 쇠고기 공급량을 보면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두수가 감소하였으나 출하체중 증가로 인하여 정육생산량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01.6%로 1.6% 증가하였다. 또한 쇠고기 수입량도 전년동기대비 113.1% 증가하여 전체적인 쇠고기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누계 축종별 성별 지육 kg당 평균경락가격을(표 5) 보면 한우암소는 전년동기대비 121%, 한우거세는 전년동기대비 110.1%로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육우거세는 전년동기대비 98.3%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한우암소와 한우거세 2등급과 3등급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이는 학교급식과 군납, 정육점식당 증가로 소비량 증가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육우거세는 공급량 증가로 인하여 약보합세를 보였다.

(표 3)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 구분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멕시코 | 캐나다 | 칠레 | 우루과이 | 계 | 냉장육 | 냉장육비율 |
|---|---|---|---|---|---|---|---|---|---|---|
| 2013년 | 64,529 | 99,537 | 18,601 | 79 | 1,023 | 238 | 232 | 184,239 | 29,402 | 16.0% |
| 2014년 | 76,799 | 111,577 | 17,897 | 64 | 1,547 | 258 | 175 | 208,316 | 33,253 | 16.0% |
| 전년대비 | 119.0% | 112.1% | 96.2% | 80.9% | 151.2% | 108.4% | 75.6% | 113.1% | 113.1%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9월 누계 기준

(표 4) 부위별 쇠고기 수입량

| 구분 | 갈비 | 등심 | 목심 | 사태 | 설도 | 안심 | 앞다리 | 양지 | 우둔 | 채끝 | 기타 | 계 |
|---|---|---|---|---|---|---|---|---|---|---|---|---|
| 2013년 | 75,313 | 32,512 | 12,908 | 2,263 | 2,975 | 1,729 | 16,415 | 15,920 | 8,115 | 1,565 | 14,525 | 184,239 |
| 2014년 | 85,978 | 34,675 | 16,911 | 3,444 | 4,311 | 1,599 | 20,207 | 15,314 | 10,437 | 1,689 | 13,753 | 208,316 |
| 전년대비 | 114.2% | 106.7% | 131.0% | 152.2% | 144.9% | 92.5% | 123.1% | 96.2% | 128.6% | 107.9% | 94.7% | 113.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9월 누계 기준

(표 5) 지육 kg당 평균경락가격

(단위 : 원)

| 육질등급 | 한우암소 | | | 한우거세 | | | 육우거세 | | |
|---|---|---|---|---|---|---|---|---|---|
| | 2013년 | 2014년 | `13년/`14년 | 2013년 | 2014년 | `13년/`14년 | 2013년 | 2014년 | `13년/`14년 |
| 1++ | 17,419 | 18,476 | 106.1% | 16,623 | 17,532 | 105.5% | 11,848 | 11,538 | 97.4% |
| 1+ | 14,229 | 15,797 | 111.0% | 14,403 | 15,788 | 109.6% | 10,792 | 10,535 | 97.6% |
| 1 | 12,483 | 14,218 | 113.9% | 12,816 | 14,409 | 112.4% | 10,037 | 9,628 | 95.9% |
| 2 | 9,740 | 11,980 | 123.0% | 11,026 | 12,810 | 116.2% | 8,883 | 8,363 | 94.1% |
| 3 | 7,744 | 10,574 | 136.5% | 8,909 | 10,894 | 122.3% | 7,441 | 7,423 | 99.8% |
| 평균 | 10,839 | 13,115 | 121.0% | 13,654 | 15,035 | 110.1% | 8,168 | 8,033 | 98.3%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9월 누계 기준

또한 생체 600kg 큰 암소와 큰 수소 산지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6~7개월령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한우 번식의향이 높아지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 ■ 2015년 한육우 사료산업 시장 전망

2014년 9월 누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3,700,25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5.8%로 4.2% 감소하였으나, 농가자가배합사료원료 생산량은 TMR 시장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09.0% 증가한 354,566톤이다(표 6 참조). 2014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4,980천톤이 예상된다.

사육단계별 배합사료 생산량은(표 7) 가임암소 사육두수 감소와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로 인하여 육성용 배합사료와 번식용 암소 배합사료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육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육두수 감소와 한우암소 도축율 감소로 인한 암소비육 사육두수 감소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나, 비육후기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육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2015년 배합사료 예상 생산량은 사육두수 감소와 TMR 시장 증가로 인하여 2014년대비 약 3%~4% 감소한 4,780천톤 내지 4,830천톤이 예상되며, 농가자가배합용 사료원료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세계 곡물 수급 전망

2014년 10월 미국 농무성(USDA)이 발표한 2014/2015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자료를 보면 세계 곡물 생산량은 24억 6,898만톤으로 0.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6) 연도별 사료생산량 현황

(단위 : 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3년9월누계 | 2014년9월누계 | `13년/`14년 |
|---|---|---|---|---|---|---|
| 배합사료 생산량 | 4,792,196 | 5,142,859 | 5,212,982 | 3,860,715 | 3,700,251 | 95.8% |
| 농가자가배합사료원료 | 332,244 | 386,195 | 447,265 | 325,408 | 354,566 | 109.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공급량은 1.75% 증가하고 사용량은 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교역량은 6.6% 감소한 3억 4,510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세계 곡물재고율은 21.4%로 전년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곡물 수급전망을 보면 생산량은

**(표 7) 사육단계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 톤)

| 구분 | 2013년 | 2014년 | `13년/`14년 |
|---|---|---|---|
| 번식육성 | 177,601 | 153,001 | 86.1% |
| 번식암소 | 520,836 | 490,426 | 94.2% |
| 비육육성 | 620,967 | 581,428 | 93.6% |
| 큰소비육전기 | 1,043,859 | 1,004,042 | 96.2% |
| 큰소비육중기 | 510,931 | 488,829 | 95.7% |
| 큰소비육후기 | 986,521 | 982,525 | 99.6% |
| 계 | 3,860,715 | 3,700,251 | 95.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월 누계 기준

**(그림 1) 옥수수 월별 시카고 선물시세**

**(그림 2) 옥수수 일별 시카고 선물시세**

자료 : http://www.cmegroup.com

**(표 8) 세계 및 미국 곡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

| 세계 | | | 생산량 | 공급량 | 교역량 | 사용량 | 재고량 | 재고율 |
|---|---|---|---|---|---|---|---|---|
| 곡물생산량 | 2012/13 | | 2267.22 | 2738.51 | 299.49 | 2284.75 | 453.76 | 19.9% |
| | 2013/14 (Est.) | | 2470.03 | 2923.79 | 369.46 | 2417.93 | 505.86 | 20.9% |
| | 2014/15 (Proj.) | 9월 | 2466.12 | 2972.62 | 343.5 | 2447.29 | 525.32 | 21.5% |
| | | 10월 | 2468.98 | 2974.84 | 345.1 | 2452.04 | 522.8 | 21.3% |
| 미국 | | | 생산량 | 공급량 | 교역량 | 사용량 | 재고량 | 재고량 |
| 곡물생산량 | 2012/13 | | 1913.21 | 2324.51 | 247.86 | 1966.61 | 409.54 | 20.8% |
| | 2013/14 (Est.) | | 2036.36 | 2437.35 | 280.04 | 2072.38 | 454.39 | 21.9% |
| | 2014/15 (Proj.) | 9월 | 10월 | 2469.77 | 265.96 | 2096.07 | 451.23 | 21.5% |
| | | Oct | 2023.46 | 2469.21 | 266.37 | 2099.99 | 447.94 | 21.3% |

**(표 9) 세계 및 미국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

| 2014/15 Proj. |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량 |
|---|---|---|---|---|---|
| 세계 | 2013/14 | 988.57 | 122.04 | 129.03 | 173.00 |
| | 9월 | 987.52 | 112.87 | 115.19 | 189.91 |
| | 10월 | 990.69 | 111.72 | 114.09 | 190.58 |
| 미국 | 2013/14 | 353.72 | 0.91 | 48.7 | 31.39 |
| | 9월 | 365.66 | 0.76 | 44.45 | 50.84 |
| | 10월 | 367.68 | 0.64 | 44.45 | 52.85 |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 -534, October 10, 2014.

0.6% 감소하고, 공급량은 1.3% 증가하고, 사용량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곡물재고율은 21.3%로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8).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9억 9,069만톤으로 0.2% 증가하고, 재고량은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3.9% 증가한 3억 6,768만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재고량은 6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9).

2014/15년 세계 곡물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수급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0월 20일 현재 옥수수 시카고 선물시세는 전년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국제 원료가격은 안정세가 전망되나. 미국 경제 및 국제 유가 동향, 에탄올 생산량, 원료시장 자금투입, 기상이변, 환율변화, 곡물 운송 배 운임 등에 따라 원료가격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한육우산업 현황 및 전망

### 가.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전망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820천두로 전년동기대비(3,043천두) 7.3% 감소하였으며, 가임암소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다.

사육호수는 109천호로 전년동기대비 16.6%가 감소하여, 호당 사육두수가 25.7두로 전년동기대비 2.6두 증가하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예상 사육두수는 2014년 8월 누계 기준 정액공급량이 2.3% 감소로 송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육두수는 2,750천두~2,780천두로 예상된다. 사육호수는 100천호~105

**(표 10) 연도별 가축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과 전망**

| 구분 | `11년 12월 | `12년 12월 | `13년 9월 | `13년 12월 | `14년 9월 | `14년 12월 | `15년 12월 |
|---|---|---|---|---|---|---|---|
| 사육두수(천두) | 2,950 | 3,059 | 3,043 | 2,918 | 2,820 | 2,750~2,780 | 2,650~2,750 |
| 가임암소(천두) | 1,249 | 1,232 | 1,234 | 1,166 | 1,165 | | |
| 사육호수(천호) | 163 | 147 | 132 | 124 | 110 | 100~105 | 85~90 |
| 호당사육두수(두) | 18.1 | 20.8 | 23.1 | 23.5 | 25.7 | 26.4두~27.8두 | 29.4두~32.4두 |

자료 : 통계청

(표 11) 연도별 한우거세 지육 kg당 경락가격

(단위 : 원)

| 육질등급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 년 | 2014 년 9 월누계 |
|---|---|---|---|---|---|---|
| 1++ | 19,314 | 20,045 | 16,521 | 17,172 | 16,715 | 17,532 |
| 1+ | 17,694 | 17,718 | 14,514 | 15,543 | 14,644 | 15,788 |
| 1 | 16,585 | 15,973 | 13,208 | 14,223 | 13,206 | 14,409 |
| 2 | 14,907 | 13,692 | 10,907 | 11,960 | 11,430 | 12,810 |
| 3 | 12,028 | 12,011 | 8,569 | 9,059 | 9,295 | 10,894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천호가 예상되며, 2015년 12월말 예상 사육두수 2,650천두~2,750천두, 사육호수는 85천호~90천호가 예상되며 호당사육두수는 29.4두 ~32.4두가 예상된다.

### 나. 쇠고기 수급 및 전망

2015년 쇠고기 예상 수입량은 호주 및 미국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중국 쇠고기 소비량 증가로 인하여 수입육이 가격은 보합세 내지 강보합세가 예상되어 2015년 쇠고기 예상 수입량은 270천톤~ 280천톤으로 2014년 대비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예상은 9.8kg~10.2kg로 예상되며 국내산 쇠고기 자급율은 44%~46%가 예상된다.

### 다. 시세 전망

2015년 한육우 시세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예상되나, 수입육 가격 상승과 쇠고기 판매점 증가. 소비촉진행사로 인한 소비량 증가와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2015년 한우거세 경락가격은 2014년 9월 누계기준 전국평균시세(표 9)대비 1/4분기 약강세~강보합세, 2/4분기 보합세~약강세, 3/4분기 약강세~강보합세, 4/4분기 보합세~약강세가 예상된다. 송아지 가격은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와 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14년 9월누계기준 평균시세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며, 송아지 자질에 따른 가격차이는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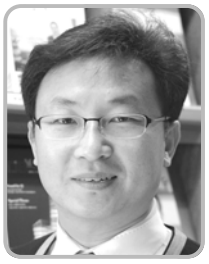
## ■ 맺음말

앞에서 논하였듯이 2015년 한육우 사료산업은 사육두수와 사육호수가 감소하고,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여 전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세는 공급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로 인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한육우산업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 확대로 인하여 수입육과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5년, 10년후를 위한 준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기록관리를 통한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번식성적 및 출하성적 향상, 농장경영 시스템화, 쇠고기 품질향상을 통한 차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낙농 사료산업 전망



**박 정 근**
㈜우성사료 부장, 축우 PM

## ■ 2014년 낙농 사료산업은…

2014년의 낙농산업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진행형'이다. 많은 제도의 보완에 따른 신제도가 적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살아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

2014년도 낙농산업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낙농업자들의 생산비 보전을 목적으로 '13년 8월 시행된 원유가격 연동제는 제조비 및 유통비용 인상에 따른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되어 '14년 시행되어야 할 연동제가 유보 되었으며, '15년에 누적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상당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생산비 보전은 소비자 지출의 증가'라는 결과가 결국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안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FMD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2달이 되지 못한 채 FMD가 재발 되었다. FMD는 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많은 부작용, 생산성 감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사후결과에 대한 연구자료를 만들어 발병 및 유입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이 백신접종하여 생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FTA를 연관지을 수 밖에 없다. 이들 나라들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골자는 '낙농품의 대대적인 관세철폐와 분유 TRQ(무관세물량) 설정'을 뉴질랜드 측에서 강하게 요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EU와 함께 세계 유제품시장 교역량을 각각 34%씩 양분하고 있는 낙농 선진국으로 낙농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13년~'14년 사이 총 180만톤의 분유를 생산했으며 그전보다 10% 증가된 양이라 한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향을 수출로 잡고 있는 것이다. EU 역시 유제품 수출을 위해 '15년 4월 이후 부터는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계가 하나되어 가는 개방화 시대에 낙농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되나,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길만이 완충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또한 유단백질을 새로 도입하고 유지방 함량과 체세포수 가격을 조정하여 저지방 고품질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하고 원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가 '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 되었다.

기본 원유 가격을 940원/L 조정하였으며, 유지방(상한선 4.3에서 4.1로 하향조정, 하한선 2.9에서 3.0상향조정, 체세포수(2등급 단가 하향, 3~4등급 패널티 강화), 세균수에 유단백(4원~19.41원) 항목을 추가 하였다.

지난 '12년도 검정성적 분석에 의하면 유단백의 3.2 이상은 전체 농가중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표 1), 유단백을 올리기 위하여 배합사료 양을 증량 급여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나, 시행 1년 동안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사료업계에서는 유단백을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2014년 사료업계는 상반기부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원료가격 인하 및 환율 안정화에 대한 이유로 사료가격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사료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료 업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격표시제의 무용론을 제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생산·수입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2015년에는 사료업계를 어렵게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본다.

**<표 1> 2012년 유우군 검정성적 분석-유단백질**

| 범 위 | 두 수 | 비 율(%) |
|---|---|---|
| 2.9이하 | 50,181 | 16.1 |
| 3.0이상~3.1미만 | 34,399 | 11 |
| 3.1이상~3.2미만 | 36,549 | 11.7 |
| 3.2이상~3.3미만 | 161,713 | 51.9 |
| 3.4이상 | 28,979 | 9.3 |
| 전 체 | 311,82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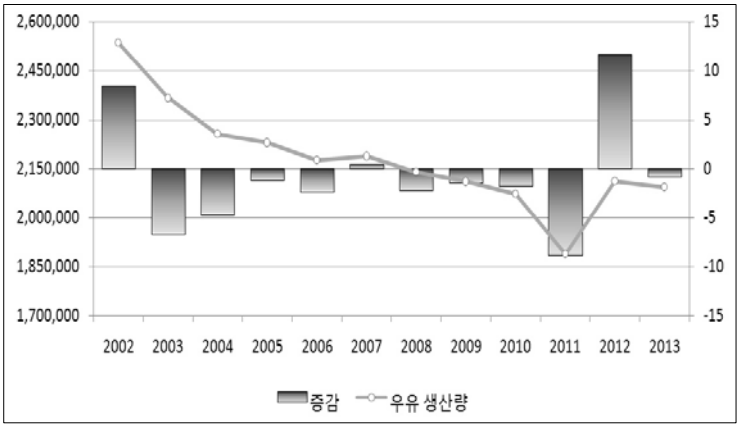
## ■ 2015년도 낙농 사료산업은…

낙농진흥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07년 월 평균 182,318톤인 반면 '14년 8월까지의 월 평균 유량은 185,537톤으로 3,219톤 늘었다. '14년 9월 전국 원유생산량은 5,956톤/일로 '13년 대비 4%, '10년 대비 7.5% 가량 늘어났다(그림 1).

이와 같은 원유 생산량 증가 원인으로는 유대정산체계 변화에 따른 수취가격 향상으로 고능력우 도태 지연과, 송아지 생산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되며(14년 3/4분기 젖소 송아지 생산마릿수 4만 2천두), '14년 8월의 여름 평균 기온이 25℃ 전후로 덥지 않은 기후를 나타내어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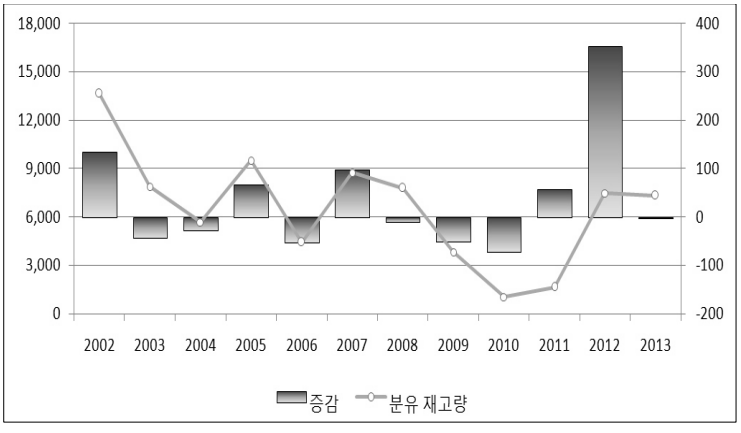
생산량 대비 원유사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14년 8월 원유사용량은 5,203톤/일로 '13년 대비 2.4%, '10년 대비 2.3% 가량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말 분유재

| 년월 | 우유 생산량 | 증감 |
|---|---|---|
| 2002 | 2,536,648 | 8.5 |
| 2003 | 2,366,214 | −6.7 |
| 2004 | 2,255,450 | −4.7 |
| 2005 | 2,228,821 | −1.2 |
| 2006 | 2,176,340 | −2.4 |
| 2007 | 2,187,824 | 0.5 |
| 2008 | 2,138,802 | −2.2 |
| 2009 | 2,109,732 | −1.4 |
| 2010 | 2,072,696 | −1.8 |
| 2011 | 1,889,150 | −8.9 |
| 2012 | 2,110,698 | 11.7 |
| 2013 | 2,093,072 | −0.8 |
| 20141~8월 | 1,484,296 | |




[그림 1] 원유 생산량

| 년월 | 분유 재고량 | 증감 |
|---|---|---|
| 2002 | 13,641 | 134.9 |
| 2003 | 7,877 | −42.3 |
| 2004 | 5,674 | −28 |
| 2005 | 9,505 | 67.5 |
| 2006 | 4,435 | −53.3 |
| 2007 | 8,761 | 97.5 |
| 2008 | 7,795 | −11 |
| 2009 | 3,822 | −51 |
| 2010 | 1,050 | −72.5 |
| 2011 | 1,648 | 57 |
| 2012 | 7,469 | 353.2 |
| 2013 | 7,328 | −1.9 |
| 20141~8월 | 113,915 | |




[그림 2] 분유 재고량

<표 2> 젖소 사료생산 현황(1~9월)

| 항목 | 13년 | 14년 | 14년-13년 | 14년(%) |
|---|---|---|---|---|
| **젖소** | **991,651** | **995,239** | **3,588** | **100** |
| 어린송아지 | 49,247 | 48,133 | (1,114) | 98 |
| 중송아지 | 70,670 | 66,655 | (4,015) | 94 |
| 큰송아지 | 122,779 | 118,290 | (4,489) | 96 |
| 임신우 | 22,129 | 22,521 | 392 | 102 |
| 종모우 | 1,381 | 2,509 | 1,128 | 182 |
| 비유초기 | 350,697 | 362,997 | 12,300 | 104 |
| 비유중기 | 73,903 | 73,835 | (68) | 100 |
| 비유말기 | 37,472 | 30,990 | (6,482) | 83 |
| 건유기 | 25,102 | 27,219 | 2,117 | 108 |
| 고능력우 | 238,271 | 242,090 | 3,819 | 102 |

* 농림축산식품부

고량도 '10년 8월 대비 '14년 8월은 352% 가량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2), 이와 같은 원유적체 현상 심화에 따른 잉여량이 제대로 소진되지 못할 시 '15년도 수급상황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원유생산 감축 및 대북지원, 제3국 지원을 통한 분유재고 문제 해결 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생산 원유 과잉에 따른 유업체의 생산량 감소 및 생산감축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 1월~9월까지의 사료생산 현황은 '13년과 비교하여 3,588톤 증가하였으며, 이중 어린송아지, 중송아지, 큰송아지 사료는 2~6%정도 감소하였으나, 임신우 및 비유초기, 고능력우의 사료는 항목별로 적게는 2%, 많게는 82%가 증가하였다(표 2).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15년도 낙농사료산업을 예측해보면 건유기 및 임신우 분만증가에 따른 분만전 송아지들의 사육두수 증가 및 비유초기 사료 증가, 건유기 사료량 증가에 따른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표 3> 월별 배합사료(공장도) 가격 동향

(단위 : 원/kg)

| 젖소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평균(1월~9월) |
|---|---|---|---|---|---|---|---|---|---|---|
| 12년 | 505.2 | 504.6 | 503.4 | 501.1 | 499.6 | 499.8 | 500.8 | 501.2 | 500.7 | 501.8 |
| 13년 | 508.7 | 492.0 | 508.1 | 508.1 | 511.2 | 507.0 | 509.8 | 512.8 | 511.5 | 507.7 |
| 14년 | 504.0 | 503.4 | 502.2 | 506.6 | 508.1 | 508.9 | 512.1 | 514.0 | 512.4 | 508.0 |
| 14년-13년 | (4.6) | 11.5 | (5.8) | (1.5) | (3.2) | 1.9 | 2.3 | 1.2 | 1.0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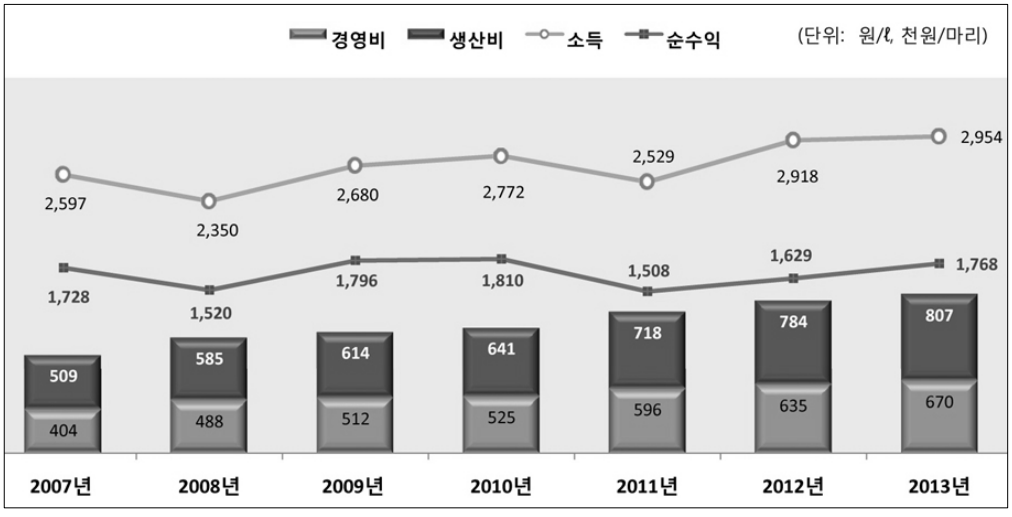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표 4> 우유 ℓ 당 생산비와 젖소 마리당 수익성

(단위 : 천원)

| 구분 | | 우유(ℓ) | | 젖소 수익성 | | | | |
|---|---|---|---|---|---|---|---|---|
| | | 경영비 | 생산비 | 총수입 | 일반비 | 사육비 | 소득 | 순수익 |
| | | | | (a) | (b) | (c) | (a-b) | (a-c) |
| '13(A) | | 670 | 807 | 8,907 | 5,953 | 7,139 | 2,954 | 1,768 |
| '12(B) | | 635 | 784 | 8,562 | 5,643 | 6,932 | 2,918 | 1,629 |
| 증감 | A-B | 35 | 23 | 345 | 310 | 207 | 36 | 139 |
| | % | 5.6 | 2.9 | 4 | 5.5 | 3 | 1.2 | 8.5 |

* 통계청(2013 축산물 생산비 조사)




[그림 3] 우유 ℓ 당 생산비와 젖소 마리당 수익성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년도의 낙농 산업의 성패는 증가하는 원유부분에 대하여 농장의 고품질 원유 생산,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사양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월별 배합사료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12년 대비 '14년은 1.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3년에 비하면 0.3% 수준 증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또한 '15년도의 배합사료 가격은 주요 원료의 수급 안정이 예상되고 있어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청의 '1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12년 대비 순수익이 8.5% 증가된 결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3).

낙농진흥회의 '국내 낙농산업 주요지표' 자료의 '14년 7월의 원유수취가격은 '12년과 '13년에 비하여 각각 4.2%, 4.9% 인상된 1073.21원으로 나타나(표 5), 수익성은 '13년 대비 향상 될 것으로 보이며, '14년 8

<표 5> 농장의 주요 수취 가격 변화

| 항목 | 전월대비 | | | 전년대비 | | | '13년 | '12년 |
|---|---|---|---|---|---|---|---|---|
| | '14년 7월 | 증감율(%) | '14년 6월 | '14년 7월 | 증감율(%) | '13년7월 | 합계/평균 | 합계/평균 |
| 원유수취가격(L/원) | 1,073.21 | (0.49) | 1,078.51 | 1,073.21 | 11.2 | 965.1 | 1,022.92 | 981.41 |
| 초유떼기(암)(천원) | 79 | 0.0 | 79 | 79 | 46.3 | 54 | 60 | 146 |
| 초임만삭(천원) | 3,307 | (0.9) | 3,338 | 3,307 | 8.0 | 3,062 | 3,170 | 3,685 |
| 흰우유(L/원) | 2,548 | 0.2 | 2,544 | 2,548 | 9.5 | 2,326 | 2,393 | 2,322 |

*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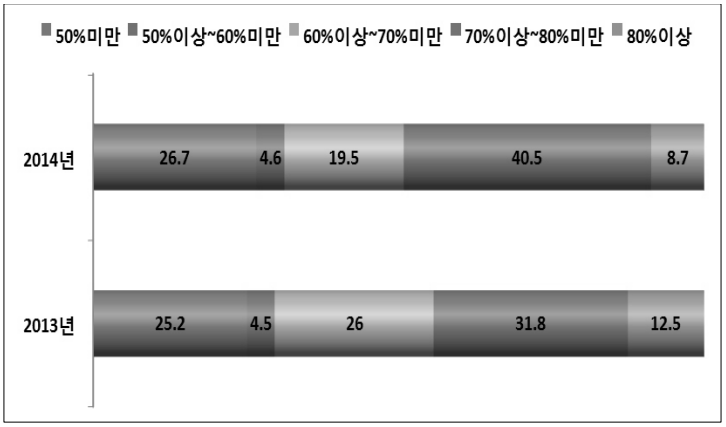
월 시행되지 못했던 가격연동제가 '15년 누적 연동제로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낙농가의 수익성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연동제 적용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13년 7월 대비 '14년 7월 흰우유 9.5%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은 '14년 1~6월 우유 소비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 5.28kg으로 전년보다 4.6% 감소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생산자, 유통, 소비자가 실이 없는 득만 있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제도의 보완으로 득만 있는 연동제가 2015년도에 실시 될 것이라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져본다.

낙농정책연구소의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사비분포 70~80%의 농가가 '13년에 비하여 8.7% 높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4), 이는 사료가격안정 및 기준유대인상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원유생산을 늘리기 위해 배합사료 급여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5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합사료 과잉 공급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예방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조기 도태우의 비율을 줄여 가축상각비 증가에 따

| 분포도 | 2013년 | 2014년 |
|---|---|---|
| 50%미만 | 25.2 | 26.7 |
| 50%이상~60%미만 | 4.5 | 4.6 |
| 60%이상~70%미만 | 26 | 19.5 |
| 70%이상~80%미만 | 31.8 | 40.5 |
| 80%이상 | 12.5 | 8.7 |




[그림 4] 유사비 분포

른 우유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업계에서는 조사료 양을 줄이고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관리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과 사양관리의 편리성, 수입 조사료의 쿼터제 적용 및 단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로 '15년도 조사료 가격 대비 배합사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적용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젖소는 장기적인 경제 동물임을 감안하여 반추동물의 생리에 맞는 사양관리를 강화하여 평균 산차를 높여 가야함은 두 번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맺음말

2015년도 낙농산업은 'The end'가 아닌 '~ing'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많은 발전과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2015년은 낙농 산업의 수익성에 많은 요인들이 '+'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쿼터제 제한을 제대로 활용한 원유생산과, 고품질 원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많은 수익을 내는 축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업계에 불어오는 제도적인 역풍을 순풍으로 전환하여 2015년도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라 생각하며, 낙농가들의 입장에서 원유량 감축 정책에 홀대 받을 수 있는 육성기 및 건유기 우군의 사양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 또한 농장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한다.

# 양돈 사료산업 전망

**이 승 형** 박사
㈜이지팜스 부장, 양돈 PM

## ■ 2014년 요약

국제적으로 유행한 질병 PED의 원인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2014년은 한돈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최대 총 사육두수 1,019만두에서 2014년 최소 총 사육두수가 968만두 까지 줄어, 연초 일 기준 3,500원 내외로 시작한 돈가가 '14년 6월 평균 6,174원/kg까지 올라 연평균 돈가는 5,000원/kg 이상 까지 높아졌다. 이로서 2년간의 암울했던 양돈시장은 끝이 났다. 그러나 2014년 말 사육두수가 다시 1,000만두 내외까지 증가한 양돈시장은 앞으로 FTA에 의해 수입돈육의 관세가 점점 허물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한돈협회에 다음 과제를 던진 것으로 2014년을 요약해 본다. 다시 한번 협회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다.

2014년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사육두수는 2014년 ¼분기 970만두에서 시작해 9월 997만두까지 올라 연말 약 1,000만두 내외 까지 증가 될 것 같으며, 사육호수는 2013년 말 5,636호에서 5,100호로 약 1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출하두수는 '13년 대비 약 4% 감소한 1,550만두로 예측되고 사료물량 또한 비슷한 비율로 감소되어 589만톤으로 2014년이 마무리 될 것 같다. 2014년 초반 사육두수 감소로 돈가가 상승해 수입물량은 2013년 대비 30% 증가한 23만 8천톤 내외 수입될 것 같으며 자급율은 8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돈가는 AI 등 대체육류 질병으로 인한 영향과 돼지의 PED로 인한 사육두수 대비 출하두수 감소, 소 값의 상승과 캠핑시장 확대로 인한 돼지고기의 인기로 고돈가를 형성해 연초 월 3,631원/kg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돈가가 5,000원/kg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평균 돈가를 표 1에서와 같이 5,000원 내외로 예상한 것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옛날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돈육가격 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현재 여러 가지 상황(AI, P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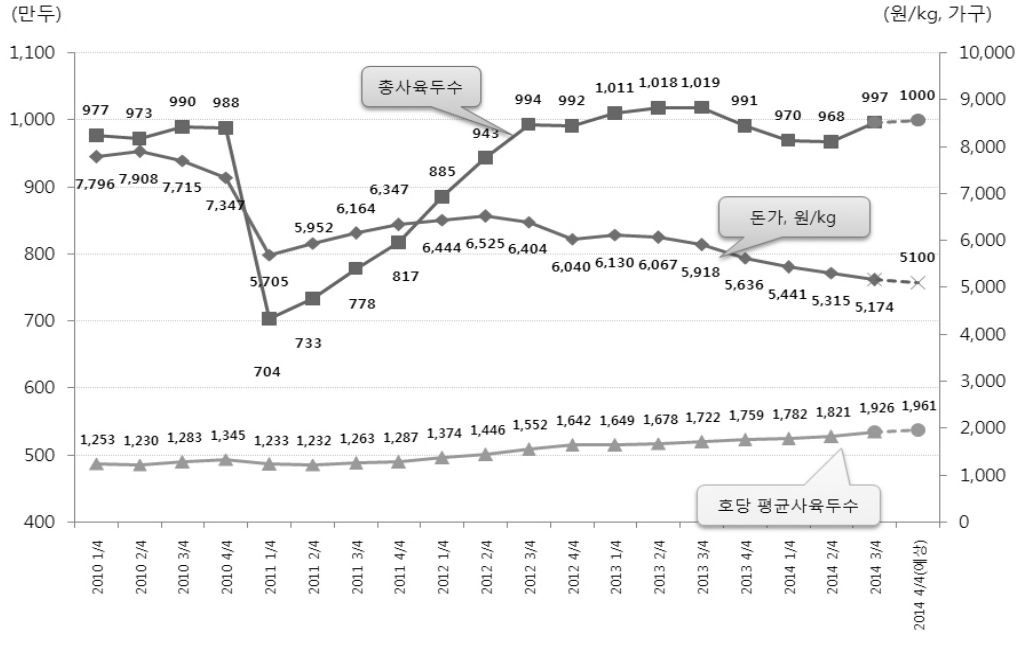
<표 1> 2014년 양돈 주요 지표(10~12월은 예측치)

| 구분 | 201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예측) | 11월 (예측) | 12월 (예측) | 합계 (예측) |
|---|---|---|---|---|---|---|---|---|---|---|---|---|---|
| 사육두수, 만두 | | | 970 | | | 968 | | | 997 | | | 1,000 | |
| 사육가구수 | | | 5,441 | | | 5,315 | | | 5,174 | | | 5,100 | |
| 출하두수, 천두 | 1,413 | 1,335 | 1,321 | 1,378 | 1,251 | 1,129 | 1,224 | 1,252 | 1,217 | 1,330 | 1,310 | 1,375 | 15,534 |
| 사료물량, 톤 | 540,312 | 468,313 | 485,588 | 492,430 | 478,688 | 449,438 | 472,405 | 470,253 | 496,762 | 520,000 | 500,000 | 520,000 | 5,894,189 |
| 수입물량(a), 톤 | 19,861 | 21,190 | 22,677 | 28,911 | 28,196 | 22,896 | 19,739 | 14,972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238,442 |
| 국내물량지수(b), 톤(추정) | 71,000 | 67,000 | 67,000 | 69,000 | 63,000 | 57,000 | 62,000 | 63,000 | 61,000 | 67,000 | 66,000 | 69,000 | 782,000 |
| 자급율(추정) | 78% | 76% | 75% | 70% | 69% | 71% | 76% | 81% | 80% | 82% | 81% | 82% | 77% |
| 총돈육소비량 (a+b), 톤 | 90,861 | 88,190 | 89,677 | 97,911 | 91,196 | 79,896 | 81,739 | 77,972 | 76,000 | 82,000 | 81,000 | 84,000 | 1,020,442 |
| 돈가, 박피원/kg | 3,631 | 3,995 | 4,961 | 4,991 | 5,307 | 6,174 | 5,525 | 5,572 | 5,272 | 4,700 | 5,300 | 5,000 | 5,015 |

* 국내물량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 총 소비량 또한 a+b의 단순한 합으로 국내 총소비량과는 차이가 있음.

소 값 상승, 캠핑문화 등) 을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그림 1]은 사육두수와 농가수의 변화 트렌드를 보기 위해 2010년부터 나타




(그림1) 양돈 사육 가구수 및 가축사육두수 경향

아래의 [그림 1]은 사육두수와 농가수의 변화 트렌드를 보기 위해 2010년부터 나타

낸 그림이다. '14년 4/4분기는 예측치로 아래와 같이 1,000만두 내외에서 2014년을 마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가수의 감소 경향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적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연말 사육농가당 평균사육두수가 약 2,000두에 근접한 1,961두 내외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 ■ 2015년 전망

**"2015년에는 현재 증가 추세인 총 사육두수가 지속될 것인가?와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PED가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2014년 말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가로 인한 수입육 대비 한돈의 경쟁력 향상이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한 경제성장에 의한 웰빙 및 캠핑 문화의 급격한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이 2015년 양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2015년은 2014년과 다르게 모돈 감축 현황 등과 같은 명확한 지표가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때문에 2015년의 예측치는 예측이라기 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의 연장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2015년 양돈시장에 나타날 위기 및 호재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설명에 앞서 돈가 체계를 박피에서 탕박으로 바꾸는 검토로 인해 2015년 돈가 체계가 바뀐다면,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변환 기준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와 함께 따라 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유통체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제외하고 돈가는 박피 기준만으로 설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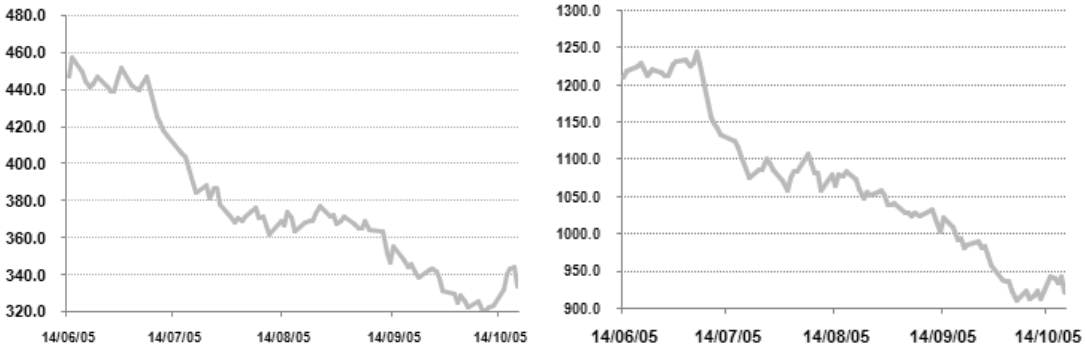
**국제 및 국내 경제**는 최근(10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세계 경제가 흐리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IMF에서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록 최근 세계경제의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이전의 예상치 4%에서 3.8%로 낮춰 잡았으나, 올해 성장률 예상치 3.3% 보다는 0.5% 더 높고, 국내경제 성장률도 올해 성장률 예상치 3.7% 보다 0.3% 높은 4.0%로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예측하고 있다.

**국제 원료 시황**, 최근 급격한 주요원료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옥수수 대두박 (그림2 a)이 국내에 적용되는 2015년 상반기에 사료가격에 반영되어 농가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최근 국내 환율가격의 상승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합사료 가격이 농가에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 있겠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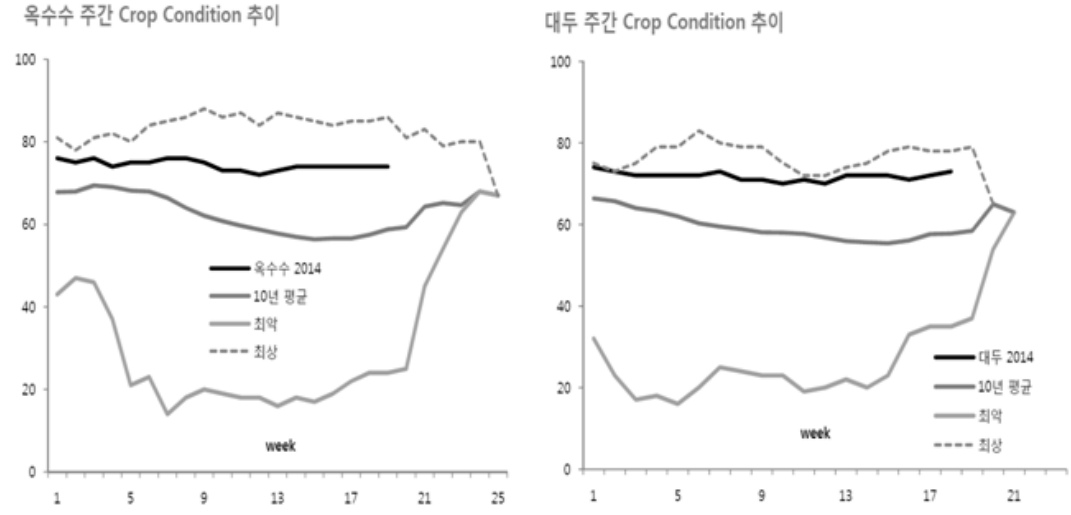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으로 2015년 농장의 손익분기점은 2014년 보다 박피기준 약 100원/kg 정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의 손

익분기돈가 참조). 최근 IMF의 경제성장 예측치 하향조정과 미국 USDA 수급보고서 재고 예측 대비 실제 재고율의 하락 등의 원인에 의해 다시 국제 시세가 반등하고 있으나, 미국의 옥수수 재고율 15.2%라는 수치 자체가 높은 편이고, [그림 2]의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옥수수와 대두박의 작황도 양호한 상황 이어서 단기적 상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상반기 곡물시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 곡물시황은 재배지역의 날씨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겠다.

**2015년 돈육 필요량**은 국내 인구와 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의 트렌드로 보았을 때 201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106만톤




a. 옥수수 대두박의 국제시세




b. 옥수수 대두박의 작황상태

**[그림 2] 옥수수 대두박의 국제시세 및 작황 현황**

<표 3> 돈육 소비 현황

| 연도 | 인구 (만명) | 인구 성장률 (%) |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kg | 총 소비량, 톤 | 수입물량 소비량, 톤 | 국내산 정육 추정, 톤 | 국내산 출하두수 | 평균 출하 체중, kg |
|---|---|---|---|---|---|---|---|---|
| 2005년 | 4,814 | 0.2% | 17.8 | 838,704 | 137,704 | 701,000 | 13,464,447 | 110 |
| 2006년 | 4,837 | 0.5% | 18.1 | 872,371 | 195,371 | 677,000 | 13,002,551 | 110 |
| 2007년 | 4,860 | 0.5% | 19.2 | 923,979 | 217,979 | 706,000 | 13,674,849 | 109 |
| 2008년 | 4,895 | 0.7% | 19.1 | 924,133 | 215,133 | 709,000 | 13,805,901 | 111 |
| 2009년 | 4,918 | 0.5% | 19.1 | 932,048 | 210,048 | 722,000 | 13,918,628 | 112 |
| 2010년 | 4,941 | 0.5% | 19.2 | 947,172 | 183,172 | 764,000 | 14,629,379 | 112 |
| 2011년 | 4,978 | 0.7% | 18.8 | 938,698 | 364,698 | 574,000 | 10,834,688 | 114 |
| 2012년 | 5,000 | 0.5% | 19.2 | 959,207 | 209,207 | 750,000 | 14,039,669 | 114 |
| 2013년(추정치) | 5,022 | 0.4% | 20.7 | 1,037,961 | 184,961 | 853,000 | 16,107,821 | 113 |
| 2014년(추정치) | 5,042 | 0.4% | 21.0 | 1,058,442 | 238,442 | 820,000 | 15,485,235 | 113 |
| **2015년(예측)** | **5,062** | **0.4%** | **20.9** | **1,059,000** | **200,000** | **859,000** | **16,220,000** | **113** |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3). 〈표 3〉의 전체적인 국내산 출하두수와 국내산 생산량은 뒤에서의 방법에 의해 추정한 것이다(그림 5). 총 소비량이 2014년과 비슷하다면 수입량이 20만 톤으로 줄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돈가 하락에 의한 사육두수가 감소해 국내산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수입과 국내산 경쟁력을 살펴보면, FTA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 국내산 돈가의 하락과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별 문화발전 측면에서 최근 급속히 발전한 캠핑시장(시장규모 '08년 700억에서 '13년 4천500억으로 약 6.4배 성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로 인한 국내산 한돈의 소비가 늘어나 수입육은 큰 증가 없이 연 20만 톤의 평년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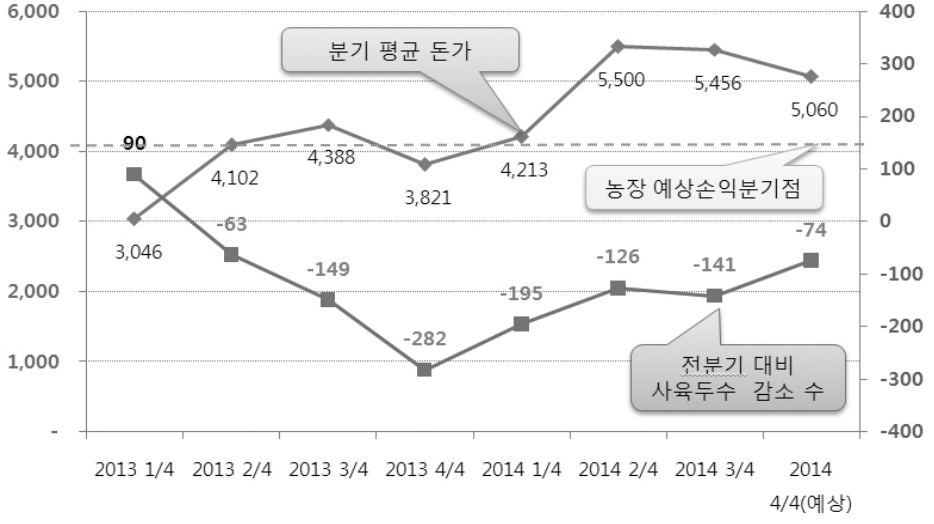
다만 올해 있었던 학교의 개학과 동시에 발생한 AI의 호재(양돈인의 입장에서)와 지속적인 소 값의 상승과 같은 대체육류의 영향에 의한 호재가 없을 경우 총 돈육소비의 감소도 예상되나 2015년 적정 돈가가 유지되면 반대로 국내산 소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육호수**는 2013년부터 많은 농가가 감소되었는데 이전 장기간의 돈가 하락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한 농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감소폭을 보면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돈가가 좋아짐에 따라

점점 적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15년에도 사육호수의 감소는 예상되지만 손익분기 이상의 돈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매 분기 150호 내외의 큰 폭의 감소 보다는 서서히 감소하여 2015년 중순 이후에나 총 사육두수 1,000만두 이상에 사육가구수 5,000호 이하로 내려가 우리나라의 평균 농가당 사육두수가 2,000두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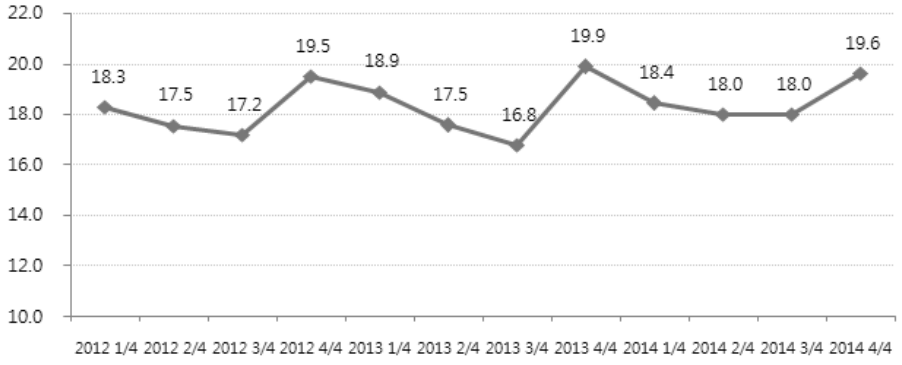
이러한 사육 농가수 감소폭의 저하(-282 → -195 → -126 → -141 → -74호 감소)와 사육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 증가는 2015년에 지속적으로 총 사육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또한 유럽형 모돈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산자수 증가(그림 4)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 6개월령에서 8개월령 암컷의 증가 현상도 뚜렷한데(88천두 → 115천두) 이러한 후보돈 입식 증가 현상이 최근 유행하는 우수 모돈으로의 교체를 위한 것인지 순수 모돈 두수 증가를 위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떤 용도이건 간에 이 또한 2015년 연말 까지 총 사육두수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 구분 | 2013 1/4 | 2013 2/4 | 2013 3/4 | 2013 4/4 | 2014 1/4 | 2014 2/4 | 2014 3/4 | 2014 4/4(예상) |
|---|---|---|---|---|---|---|---|---|
| 분기평균 돈가 | 3,046 | 4,102 | 4,388 | 3,821 | 4,213 | 5,500 | 5,456 | 5,060 |
| 사육호수 | 6,130 | 6,067 | 5,918 | 5,636 | 5,441 | 5,315 | 5,174 | 5100 |
| 사육호수 증감 | 90 | -63 | -149 | -282 | -195 | -126 | -141 | -74 |

**[그림 3] 돈가와 사육호수 감소 경향과의 관계**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추정 MSY | 18.1 | 18.3 | 1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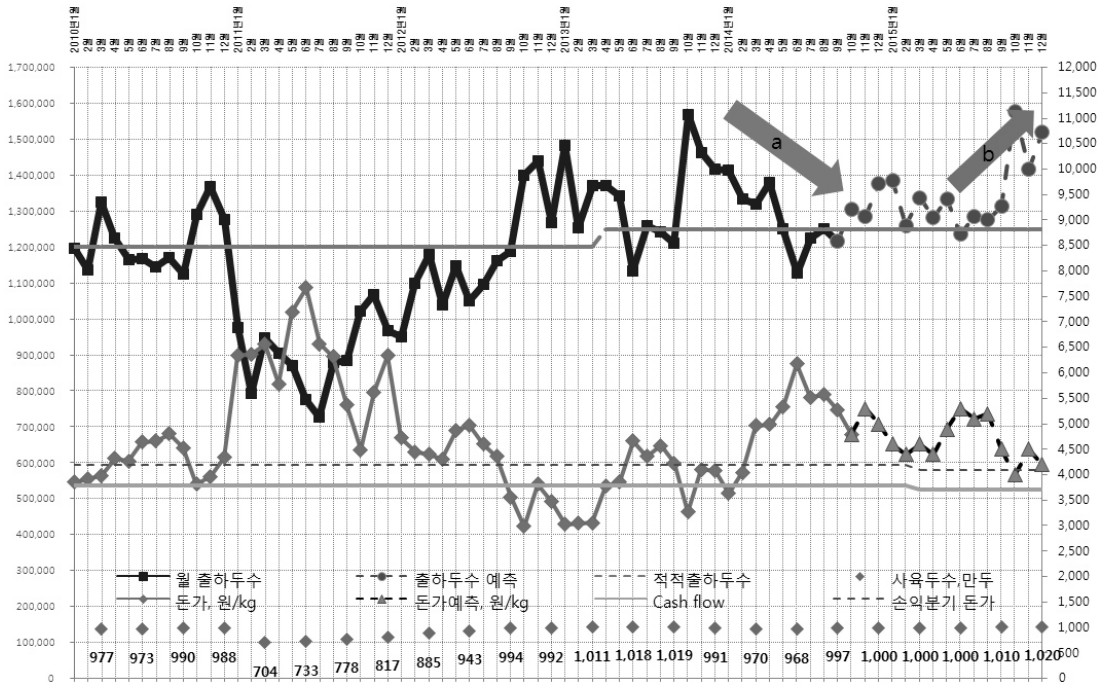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 모돈 생산성 변화 (추정 MSY)**

기본적으로 총 사육두수의 지속적 증가는 **출하두수와 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이용해 현재의 상황을 대입하여 그림 5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설명 생략). 2015년에는 현재 발표된 총 사육두수 현황과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보아 출하두수는 서서히 증가하여 2014대비 +5~6%의 많은 돼지가 출하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총 출하두수는 이전 해인 2013년 수준으로 높아질 것 같다.

출하 패턴은 2014년과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날 요인이 많이 있다. 즉, 2013년 말 총 사육두수가 1,019만두에서 2014년 968만두로 감소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출하두수는 아니였지만 월 출하두수가 그림 5의 a와 같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돈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일반적으로 돈가는 절대적인 돈육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림의 과거 기록에서와 같이 출하두수의 증감 추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2015년에는 점진적 출하두수 증가가 (그림 5의 b) 하반기 돈가의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015년에도 계절적 트렌드에 의해 하반기 돈가는 올라 가겠으나, 필자의 기억으로 2014년 하절기 수태율은 [그림 6]과 같이 하절기 극심한 고온이 아니 였기에 많은 농가에서 큰 영향 없이 지나 갔던 것으로 기억되어 5,300원 내외로 예측해 보았다. 그림5의 전체적인 돈가 흐름은 2015년의 예측이 아니라 2015년 돈가 예측을 위한 기준 돈가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이 기준 돈가선을 보면, 고돈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돈가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는 상태의 돈가 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돈가를 결정하는




**[그림 5] 2015년 출하두수 예측 및 돈가 예측을 위한 기준 돈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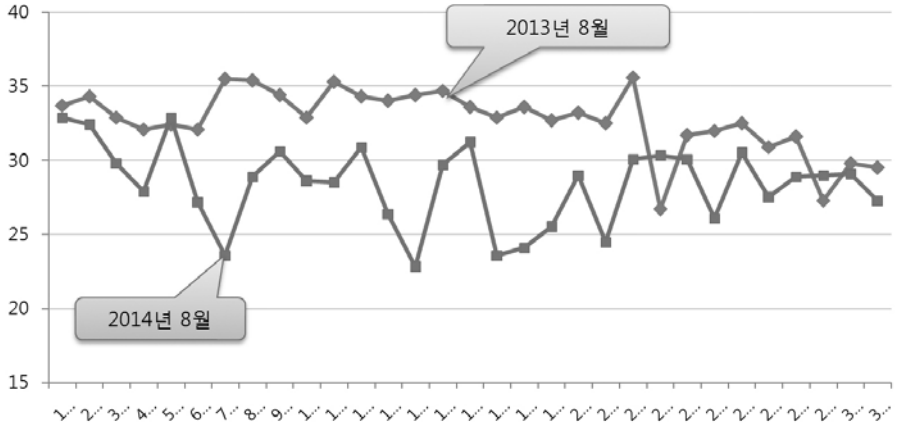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외부변수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10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삼겹살이 소진되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이문화로 대변되는 삼겹살의 소진은 올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가지 소규모 행사들이 가을로 미루어진 것과 가을철 캠핑시장의 확대와 어느 정도 관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해 향후 저돈가로 대변되는 9~10월과 봄철의 돈가 변화도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져 농가의 안정적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2015년의 돈가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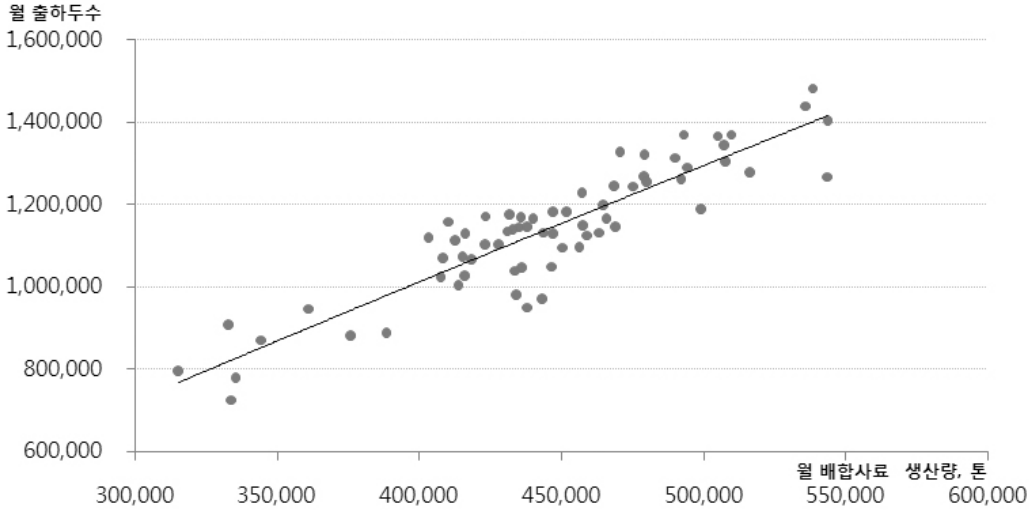
☞ 예상보다 급격한 다음과 같은 요인들, 사육두수 증감, 국내 한돈 소비시장의 확대 여부, 국제 돈가 및 수입물량의 변화, 돼지고기 이력제의 영향, 현재 발병 중인 PED 확산여부, 웰빙 및 캠핑문화 등이 국내 돈가를 상승으로 또는 하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바램이 있다면,  농장의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농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하반기 저돈가를 생각해 철저히 대비했으면 한다.

배합사료 생산량은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출하두수와 사료생산량과의 회귀방정식(그림 5)을 이용해 추정해본 결과, 2014년 589만톤(추정치) 보다 35만톤 많은 624톤 생산되어 2013년 대비 약 6% 증가가 있을 것으




[그림 6] 중부권 2013년 대비 2014년 8월 최고기온 현황




[그림 7] 월 출하두수와 사료생산량과의 관계

<표 4> 우리나라 농장의 사료 요구율 변화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예측) | 2015년(예측) |
|---|---|---|---|---|---|
| 월 출하두수 | 10,818,691 | 14,018,093 | 16,107,821 | 15,500,000 | 16,220,000 내외 |
| 사료량 예측 | 4,481,696 | 5,685,466 | 6,136,414 | 5,890,000 | 6,240,000 이상 |
| 사료요구율 | 3.67 | 3.59 | 3.37 | 3.36 | 3.4 이상 |
| 비고 | 구제역 영향 | | | | 음식물사료 대체효과가 나타난다면 3.4 이상 예상됨 |

로 예상되지만 돼지고기 이력제로 인해 사육농장 및 사육이력과 도축장 및 도축일 그리고 등급까지 공개된다면 음식물 사료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증가 폭이 예측치인 6% 보다 높아 2014년 대비 2015년의 출하두수 증가 폭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표 4〉와 같이 구제역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사료요구율의 통계상 상승(3.4 이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 맺음말

간략하게 2015년 한 해를 전망해 보았다. 현재('14년 10월)의 돈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육두수 현황(968 → 997만두)으로 본다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FTA의 관세 점진적 관세인하, 국내 소비확대, 질병 등)도 많이 내재해 있는 전망하기 어려운 2015년 이다. 하지만 2014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돈가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지만 5,000여명의 사양가 모두가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자세로 생산성 향상과 농장운영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어떤 목표이던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된다.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2015년 어떤 시황이 오던지 시황에 상관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농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양계 사료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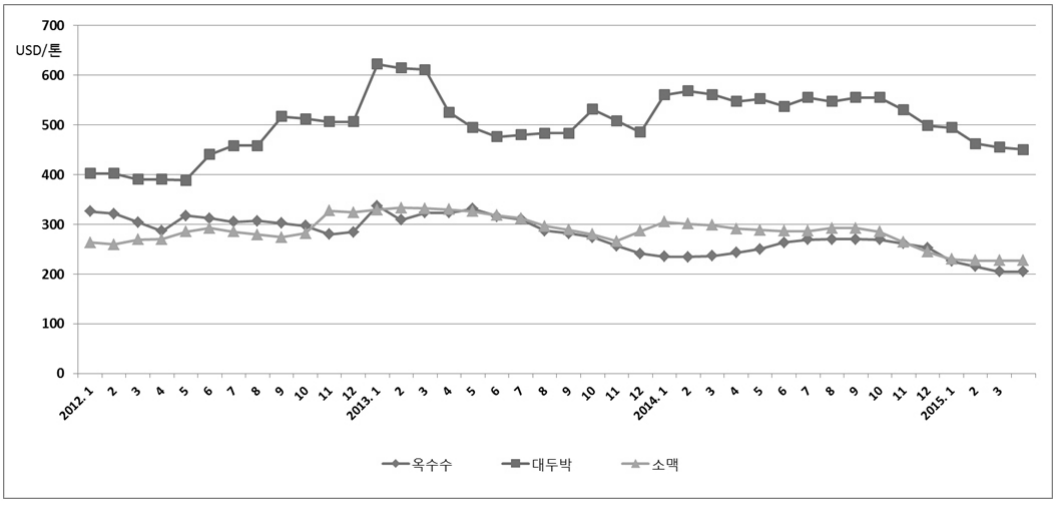
서 상 훈 박사
㈜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사업부 연구기술 및 마케팅담당 이사

## ■ 2014년 양계산업을 돌아보며

2014년도 양계산업은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라는 엄청난 폭풍으로 시작 하였다. 이는 또한 전국을 휩쓸며 양계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아직도 양계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남아 있다는 현실과 함께 2014년 한해도 이제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그나마 연초부터 서서히 시작된 원료곡물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 하향화 되면서 몇 달 남지 않은 연말을 그나마 내년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15년도 양계산업 전망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생각하며, 이런 저런 지표들을 살피다 보니 내년에도 어김없이 여러 가




[그림 1] 주요 사료곡물 가격 동향

지의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다시금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짐을 지울 수가 없다.

2015년도 연초에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원료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안정된 수급상황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환율 추세로 사료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진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난가와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계육의 가격도 구조적인 생산잠재력 상황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약세와 강세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계산물 수익의 불안정한 상황은 양계사료 산업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2014년도 양계분야 통계자료를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양계배합사료 전망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2014년도 9월(3/4분기)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526만 3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241만 2천마리(3.8%), 전년동기 대비 258만 9천 마리(4.1%)각각 증가, 육계는 7,584만 6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2,774만 7천 마리(-26.8%) 감소, 전년동기 대비 1,134만 1천 마리(17.6%) 감소한 상황이다.

산란계는 지속적인 산지계란가격 호조에 따른 입식증가 및 노계 도태 지연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 ('13. 8) 1,322 → ('14. 3) 1,337 → ('14. 6) 1,397 → ('14. 8) 1,392원
- 가구 당 마리수 : ('13. 9) 51.5 → ('14. 3) 54.3 → ('14. 6) 56.0 → ('14. 9) 56.5천 마리

육계는 여름철 특수(삼계탕 등)가 끝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 보다 감소, 아시안게임 특수에 대비한 입식증가 등으로 전년보다는 증가로 나타났다.

- 사육가구수 : ('13. 6) 1,972 → ('13. 9) 1,457 → ('14. 6) 2,035 → ('14. 9) 1,578가구

오리 사육 마리수는 819만 7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210만 8천마리(34.5%) 증가, 전년 동기대비 404만 9천 마리(-33.1%))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사육가구의 입식 증가로 전분기 보다 증가, 가금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사육가구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 사육가구수 : ('13. 6) 979 → ('13. 9) 929 → ('14. 6) 549 → ('14. 9) 693가구

## ■ 산란계 사육 및 사료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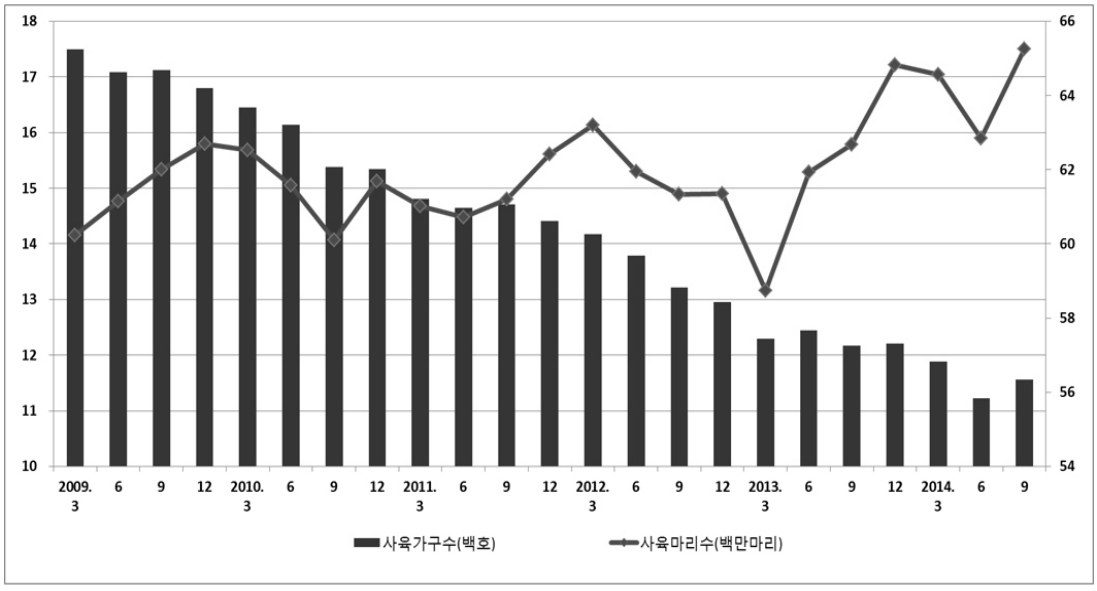
2013년 4/4분기부터 생산원가 이상의 가격대를 회복한 계란값은 여러 가지 상승 호재로 인해 현재까지 장기간의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연초까지는 이어갈 것으

**<표 1>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 천수)

| 구분 | 3월 | 6월 | 9월 | 12월 |
|---|---|---|---|---|
| 2014년 (A) | 64,572 | 62,851 | 65,263 | |
| 2013년 (B) | 58,746 | 61,927 | 62,674 | 64,824 |
| 증감률 A/B (%) | 9.9 | 1.5 | 4.1 | |

자료 : 통계청(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및 전망치)




자료 :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그림 2]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가구수 추이**

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입식증가와 노계 도태 지연 등에 따라 상반기 이후 계란값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 원료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 환율 안정화 등의 예상과 맞물린 사료가격 하향 안정화로 인한 계란 생산원가 하락으로 채란농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3월 대비해서 소폭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65,263만 마리로 전년 대비해서는 그 격차가 4.1%로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많이 감소한 반면, 계사 현대화 사업 및 지속적인 계란가

<표 2> 산란계 육추사료 생산 현황

(단위 : 톤)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2014 | 31,845 | 30,664 | 29,612 | 30,752 | 32,725 | 31,682 | 33,573 | 32,811 | 34,176 | | | | 287,840 |
| 2013 | 30,639 | 30,299 | 27,139 | 26,442 | 27,089 | 31,050 | 32,758 | 30,508 | 29,951 | 34,011 | 32,738 | 33,849 | 366,473 |
| 2012 | 34,521 | 36,353 | 37,416 | 33,947 | 35,718 | 33,837 | 31,600 | 29,906 | 28,738 | 28,978 | 29,410 | 29,692 | 390,116 |

자료 : 농업관측센터

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전체 사육 마릿수는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추사료는 2013년 전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1월부터 입식이 증가되는 조정을 거쳐 6월까지는 2012년 수준과 비슷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4~8월에 거쳐 증가하여 9월에는 34,000톤을 넘어섰다.

따라서 11~12월 계란 생산에 가담할 신계군 증가와 함께 2015년 상반기 까지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된다〈표 2〉.

산란계 사료는 연초 발생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으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월 이후부터 전년도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난가의 영향으로 노계도태 지연 및 신계군 생산 가담 상황 등이 맞물려 내년 상반기 까지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표 3〉.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총 34,718천수로 월평균 289만수 정도로 전년에 비하여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도 상반기에도 많은 수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4〉.

이것은 예년에 비해 산란계 수수가 적정 수수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자율적인 사육 수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 하향세를 보여주는 원료곡물 가격으로 인해 농장의 사

<표 3> 산란계사료 생산 현황

(단위 : 톤)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2014 | 185,577 | 160,556 | 170,482 | 171,637 | 170,143 | 158,196 | 166,436 | 168,479 | 168,815 | | | | 1,520,321 |
| 2013 | 175,090 | 148,768 | 160,810 | 173,506 | 173,821 | 146,785 | 160,819 | 156,813 | 162,993 | 172,177 | 170,244 | 181,582 | 1,983,408 |
| 2012 | 169,199 | 154,871 | 169,210 | 164,478 | 166,567 | 157,585 | 152,853 | 154,171 | 161,852 | 165,674 | 163,412 | 176,139 | 1,956,011 |

자료 : 농업관측센터

<표 4>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단위 : 천수)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2015 | 3,563 | 3,593 | 3,656 | | | | | | | | | | 10,812 |
| 2014 | 2,918 | 3,109 | 3,081 | 3,216 | 2,864 | 2,725 | 2,816 | 2,877 | 2,796 | 2,740 | 2,770 | 2,806 | 34,718 |
| 2013 | 3,266 | 3,092 | 2,870 | 3,026 | 3,354 | 3,498 | 3,326 | 2,990 | 2,991 | 3,298 | 2,997 | 2,881 | 37,589 |
| 2012 | 3,160 | 3,549 | 3,510 | 3,482 | 3,598 | 3,765 | 4,003 | 4,067 | 3,793 | 3,200 | 3,042 | 3,218 | 42,387 |

자료 : 농업관측센터

료 원가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육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져온 좋지 않은 사회적인 상황으로 소비둔화와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진 저가 축산물 상황이 육계시세에도 하반기까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육계시세는 10월 들어 생산원가 이상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육계사육수수는 평년대비 증가 상황이고 연 평균 도계수수도 전년대비 12% 증가되어 현재의 시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5〉의 대한양계협회 육용종계 입식 동향을 보면, 2013년 대비 5% 감소한 685만수 정도로 예상되어 올해 병아리 과잉공급에 따른 어려움과는 달리 내년도에는 비교적 안정된 병아리 공급이 예상된다.

〈표 6〉의 농업관측센터 2014년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1~8월까지 2013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한 206,639톤으로 나타났다.

〈표 7〉의 농업관측센터 2014년 육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1~9월 까지 2013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1,777,401톤으로 2014년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생산비 이하의 육계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5> 육용종계 입식 동향

(단위 : 수)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전년대비, % | 87.3 | 93.6 | 73.4 | 89.2 | 98.5 | 105.2 | 97.8 | 87.9 | 126.0 | 99.3 | 125.4 | 139.4 | 105.2 |
| 2014 | 275,000 | 360,200 | 560,200 | 768,700 | 631,300 | 478,900 | 493,400 | 681,100 | 897,800 | | | | 5,146,600 |
| 2013 | 314,900 | 385,000 | 763,600 | 861,500 | 640,800 | 455,100 | 504,600 | 774,700 | 712,600 | 809,900 | 617,900 | 379,200 | 7,219,800 |
| 2012 | 355,700 | 671,800 | 870,200 | 756,100 | 586,300 | 386,800 | 468,000 | 559,000 | 628,700 | 815,300 | 492,800 | 272,000 | 6,862,700 |
| 2011 | 208,100 | 430,900 | 719,900 | 727,900 | 679,800 | 463,050 | 553,200 | 726,000 | 780,100 | 605,400 | 511,400 | 330,000 | 6,735,750 |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6>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 동향

(단위 : 톤)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2014 | 23,265 | 21,356 | 23,419 | 24,758 | 23,971 | 21,617 | 21,450 | 22,449 | 24,354 | | | | 206,639 |
| 2013 | 21,190 | 19,564 | 21,479 | 24,215 | 23,792 | 20,604 | 20,123 | 20,346 | 22,173 | 24,524 | 23,082 | 22,788 | 263,880 |
| 2012 | 21,386 | 21,510 | 24,379 | 24,029 | 23,358 | 20,510 | 19,386 | 21,045 | 22,689 | 22,083 | 20,132 | 20,659 | 261,166 |

자료 : 농업관측센터

<표 7> 육계 배합사료 생산 동향

(단위 : 톤)

| 연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
| 2014 | 175,252 | 175,431 | 173,558 | 189,607 | 220,707 | 238,332 | 238,156 | 189,295 | 177,063 | | | | 1,777,401 |
| 2013 | 145,784 | 131,884 | 161,784 | 177,679 | 198,709 | 215,411 | 213,597 | 164,899 | 144,197 | 162,598 | 173,019 | 186,719 | 2,076,280 |
| 2012 | 157,292 | 143,790 | 162,707 | 180,825 | 206,350 | 228,699 | 224,464 | 170,160 | 145,744 | 159,219 | 167,375 | 170,622 | 2,117,247 |

자료 : 농업관측센터

## ■ 맺음말

양계업계는 2014년 초부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모든 양계산업 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협회, 계열주체와 종계업체, 사양가, 사료업체가 모두 현명한 대처를 통해, 양계산물의 수요와 공급 안정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난가 강세와는 달리 육계가격은 장기간 생산비 이하의 가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료곡물 하락 및 안정된 환율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장의 사료원가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란계 및 육계 모두 사육수수는 이미 적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소비 잠재력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수요 창출이 없는 무리한 입식, 사육과 공급 확대는 미래의 양계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양계인 모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장논리에 부흥하는 지혜로운 생산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